

## 기도

1. 주의 영으로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나눔

1. 우리의 경험과 고집을 앞세운 적이 있습니까?
2.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적은 언제입니까?

## 신앙

### 바이블로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단으로 인한 위협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해서 믿음에 대한 근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이며, 시간을 주고자 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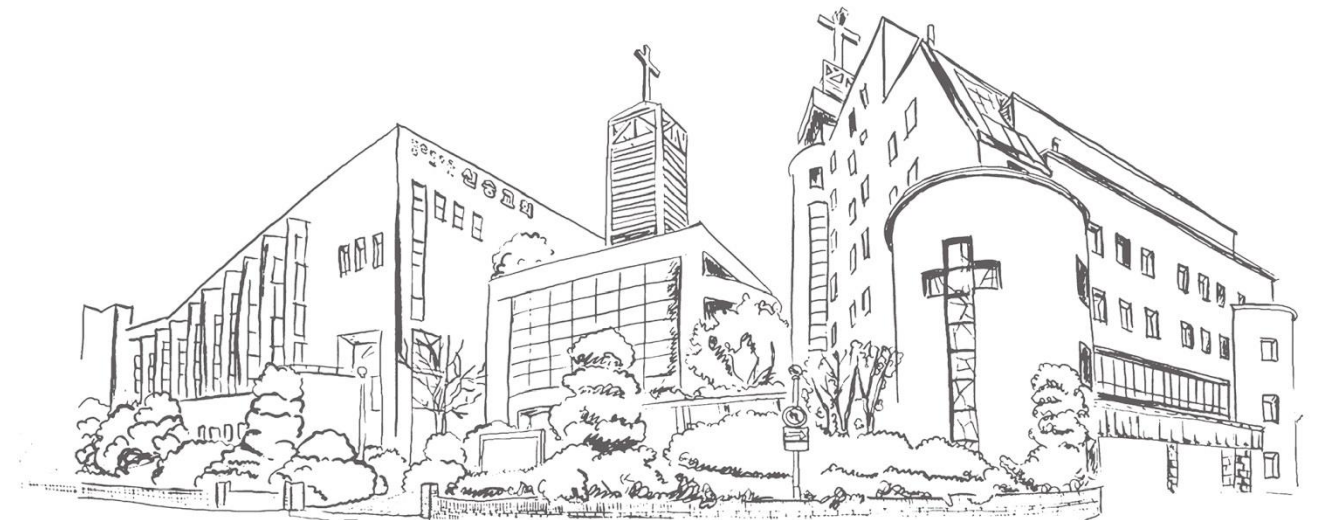


# 구역 공과

2022년 4월 3일

마음의 수건을 벗으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마음의 수건을 벗으라

고린도후서 3장 13~18절 (23장, 259장)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복음을 듣는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완고함과 같은 수건이 벗어지길 원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 주께로 돌아가서 영광을 보고 영광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었다는 말씀입니다(13~16절).

모세가 하나님께 두 개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감쌌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이유는 첫째, 헛된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높이 여기고, 모세를 섬길까 주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광채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건을 덮어 가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고, 잠시 후면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고후4:18).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이 자라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을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이처럼 빛이 날 때가 있으면 이 빛이 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 이후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빛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그 역할을 다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은 폐하여지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서 모세와 같이 수건을 덮지 않고 열어놓았다고 말씀해주십니다(13절).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여주셨고, 가려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듣는 이들이 수건을 벗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15절). 하지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과 같습니다(14절).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16절).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세상 쪽으로 밀어내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옛 방식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힘쓰면 점점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심령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건이 벗겨진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17~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17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건을 벗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 영의 세계요, 자유함을 누리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롬8:1~2).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18절a). 수건을 벗은 성도, 주님께로 돌아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 됩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18절b).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을 수 있습니다(18절c).

##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해서 그 수건이 벗어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수건이 벗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고,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정죄함이 없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